

창조계층의 이동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Movement of the Creative Class

주미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Mijin Joo(abraxa@naver.com)

요약

창조계층은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뜻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지역정부에는 도시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창조계층을 유입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창조계층이 이동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차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창조계층의 이동특성과 이주 동기를 분석하여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조계층은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이동성이 높았다. 둘째, 창조계층 이동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20대와 30대의 젊은층이, 미혼보다는 기혼자, 전세 등 자가 가 아니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동자가 많았다. 셋째,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이 이주 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는 주거 요인과 직장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직장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간관계, 편의시설 등의 변수는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중심어 : | 창조계층 | 창조계층이동자의 특성 |

Abstract

The creative class is the class of workers whose job is to create meaningful new forms.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role of the creative class in regional development. Many policy makers have invested to amenities to attract more creative class into their cities or regions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about the migration of the creative clas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analysis of the movement of the creative class by using the 17th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the creative class are more likely to move than the non-creative class. The characteristic of creative class who moved is related to married man aged 20s and 30s without own house. Also,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determinants of migration of the creative class and the non-creative class. It was founded tha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migration of the creative class are housing related reasons such as home ownership and job reasons. Relationship, convenient facilities are not important factors when the creative class make a decision to move.

■ keyword : | The Creative Class | The Movement of the Creative Class |

I. 서론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경제성장에 있어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적자본이 강조되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인적자본은 다양한 지표로 측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력지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대학교 졸업이상의 고학력자들을 인적자본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의 경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인적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자료를 구하기도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Florida[1]는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현재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조계층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창조계층은 도시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뜻한다. 이후 창조계층은 도시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창조도시의 논의로 발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2-4].

우리나라 창조계층의 경우, 김범식[5]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은 전국의 약 27.4%, 경기도는 약 27.3%, 인천은 약 5%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국의 약 59.4%의 창조계층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Q지수에서도 1이 넘는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뿐으로 나머지 지역은 창조계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의 창조계층의 집중 문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계층의 이동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계층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동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조계층의 유무와 창조계층의 종류에 따라 이동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둘째, 창조계층 이동자의 선별성을 비교하고, 셋째, 창조계층의 유무와 창조계층의 종류에 따라 이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창조계층의 이동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시사점을 제공하려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창조계층의 이동에 대해, 창조계층의 유

무, 창조계층유형별로 이동요인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유의한 시사점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1. 창조계층의 개념 및 이동요인

많은 학자들이 인적자본과 관련된 노동자들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Ehrenreich[6]는 “Professional-managerial”이라고 불렀으며, Reich [7]는 미래 직업을 단순생산직, 대인서비스직, 창조적 전문직으로 구분하면서, 창조적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아이디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Symbolic Analyst”라고 불렀다. Symbolic Analyst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공장주변에 입지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Florida는 이러한 논의들을 발전시켜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창조계층(Creative Cla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창조계층은 슈퍼창조핵심인력과 창조전문인력, 보헤미안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슈퍼창조핵심인력은 과학자, 소설가, 예술가 등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창조계층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예술계층을 분리해 보헤미안 계층을 추가하였다. 창조전문인력은 첨단기술업종, 법률, 보건 의료, 경영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써 슈퍼창조계층을 보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왜 창조계층이 이동하는가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첫째는 어메티니티와 같은 도시의 매력에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하다는 연구들이다. 1990년대 중반, Clark[8]는 시카고연방은행이 제공하는 중서부지방도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그는 소비와 관련된 어메티티(레스토랑, 관광지, 쇼핑센터 등)가 인적자본의 이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처음에는 거의 관련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왜냐하면 생산시설이 아닌 카페와 같은 소비시설이 도시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lorida는 어메니티가 풍부하며, 개방성(Tolerance)이 높아 여러 문화에 대해 편견이 없고 독특한 분위기와 독창성이 있는 지역에 창조계층이 이동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다. 실증적으로 Mallender와 Florida[9]는 스웨덴 지역의 창조계층을 분석하여 대학교, 어메니티, 서비스의 다양성, 개방성이 창조계층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둘째, 거주 환경 등의 요인들이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Lawton[10]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주환경과 관련된 요소들, 주택가격, 접근성, 통근시간이 창조계층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Borggren[11]은 스웨덴의 창조환경을 분석하여 응답자들의 직장 여부에 따라 창조적 환경도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았으며, 창조계층의 거주지와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 조건이었다.

넷째는 고용기회 등의 경제적 요인이 창조계층의 이동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발표되었다. Hansen[12]은 스웨덴의 창조계층을 조사하여 창조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이동률이 높으며, 이주 동기는 장소보다는 직장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Scott[13]는 창조계층 중에서 특히 엔지니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이들의 이주에는 따뜻한 날씨를 제외한 어메니티는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고용기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archen[14]은 핵심창조계층에 곧 편입될 과학기술 졸업생을 조사한 결과, 장소의 질보다는 고용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논의는 Florida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창조계층에게 경제요소가 어메니티보다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재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창조계층의 연구들은 크게 창조계층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도시정책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창조계층의 공간

적인 입지패턴이나 선호지역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창조계층의 공간적인 입지패턴이나 선호지역을 밝히는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홍주·박기풍[15]은 3T(Talnet, Tech -nology, Toerance) 지표에서 창조적 계층, 기술, 관용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조계층의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집중도가 높아 지표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고 분석하였다.곽수정[16]은 서울시 창조계층은 도심, 서초구 및 강남구, 여의도 및 홍대일대에서 집중하고 있으며, 핵심적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는 업무지역인 도심과 서초구 및 강남구에 입지하였으나, 보헤미안은 홍대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입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배혜현·이희연[17]은 외국인 창조계층을 대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업/학업, 여가생활, 사회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대전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계층의 입지패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창조계층의 이동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관[18]은 제주시와 파주시에 위치한 4개 사례지역에 대해 창조계층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시의 경우, 현 근무지 근무이유는 근무환경,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파주시의 경우는 자연환경, 근무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은주[19]는 지식기반산업에 한정하여 창조인재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린 어메니티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이 창조인재의 이동에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인 어메니티 요인은 중요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자료를 통해 창조계층의 이동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창조인재를 예술인력, IT인력, 연구 인력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체 창조계층을 대상으로 아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주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하거나, 예술인력, IT인력, 연

구 인력만을, IT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분석된 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창조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창조계층의 이동 특성을 비창조계층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제한적인 연구대상으로 인해 창조계층만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비창조계층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창조계층 유형별로 창조계층의 이동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창조계층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창조계층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좀 더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넷째,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창조계층의 이동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조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도권으로의 이동, 수도권내 이동, 비수도권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사용자료 및 분석방법

창조계층의 이동 특성과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는 1차 조사가 이루어진 1988년부터 2014년까지 17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시간적 연구범위는 1년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사 여부를 응답한 가구자료와 표준직업코드를 가지고 있는 개인자료를 결합하여 SAS와 SPSS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창조계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계층을 구분하고, 창조계층의 유무와 창조계층의 종류에 따른 이주자의 특성과 이주동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창조계층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창조계층을 구분하였다. Florida는 창조계층을 핵심창조인력, 보헤미안, 창조적 전문가로 구분하고 직업을 중심으로 창조계층을 구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

의 직업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업표준코드에 맞춘 창조계층 구분이 필요하다. 최일용[20]은 Florida(2002)와 Mcgranahan & Wojan (2007)의 개념을 활용하여 창조계층을 관리자, 전문가로 구분하여 인구총조사 직업(소분류)자료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김은란[21]은 예술창조계층, 핵심창조계층, 일반창조계층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고용조사(소분류 수준)를 사용하였다. 김범식[5]은 창조계층을 핵심창조,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중분류 수준)에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은란의 연구를 참고하여 창조계층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149개중 57개 업종을 창조계층으로 구분하고, 다시 예술, 핵심, 일반으로 구분하여 가장 자세한 창조계층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직종의 종사자 평균교육수준이 높은 직업군을 핵심창조 및 일반창조계층으로 분류하고,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는 예술창조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예술 창조계층은 예술, 문화 등의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핵심 창조계층은 높은 교육수준이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에 속한다. 일반 창조계층은 관리자 및 전문가 중 핵심 및 예술 창조계층을 제외하고, 지식, 정보,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종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둘째, 창조계층의 유무와 창조계층별 특성과 이주동기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이 사용되었다. 카이제곱 검정은 범주(category)별로 관측된 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봄으로써 하나의 확률모형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정하는데 사용된다[22]. 이에 따라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창조계층별 자료는 소표본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을 경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5개미만의 빈도가 관측될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보다 피셔의 정확한 검정 결과와 더 신뢰할만하다고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창조계층별 이주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피셔의 정확한 검정이 사용되었다.

표 1. 창조계층의 분류

구분	코드	직업분류명	
예술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화가,사진가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문화 지원	134	문화,예술,디자인및영상관련 관리자	
	131	연구,교육및법률관련관리자	
핵심	211	생명및자연과학관련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전문가	
	251	대학교수 및 강사	
	112	기업고위임원	
	241	의료진료전문가	
핵심 전문 인력	261	법률전문가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및공공단체임원	
공공 경영 전문 관리 자	120	행정및경영지원관리자	
	132	보험및금융관리자	
	133	보건및사회복지관련관리자	
	149	기타건설,전기및생산관련관리자	
	151	판매및운송관리자	
일반	159	기타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자	
	213	생명및자연과학관련시험원	
	221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전문가	
	222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223	정보시스템운영자	
	232	화학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3	금속·재료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4	환경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5	전기,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242	약사및한약사	
	244	영양사	
	248	종교관련 종사자	
	보건 복지	252	학교교사
		254	문리,기술및예능강사
		259	기타교육전문가
262		행정전문가	
교육 행정	271	인사및경영전문가	
	272	금융및보험전문가	
	273	상품기획,홍보및조사전문가	

주: 김은란 외(2014) 연구 참조

IV. 창조계층 이동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1. 창조계층의 이동성

일반적으로 창조계층은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자계층에 비하여 이동이 좀 더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패널의 17차 조사에서 창조계층은 전체 조사자 13,169명 중 7.2%인 943명이었다. 지난번 조사 이후 이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창조계층으로 분류된 943명중 약 15%인 142명이 이사를 했다고 대답하였다. 비

창조계층은 11,314명 중 7.5%인 912명이 이동했다고 대답하여 비창조계층에 비해 창조계층의 이동비율이 높았다. 이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간에는 이동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창조계층 유무와 이사 유무

구분	이사 유무		합계	유의 확률
	이사 없음	이사		
비창조 계층	11314 (92.5)	912 (7.5)	12226 (100)	.000
창조 계층	801 (84.9)	142 (15.1)	943 (100)	
합계	12115	1054	13169	

주:** P<0,05 *** p<0,01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이사를 한 계층은 예술계층은 약 16.6%, 핵심창조계층은 19.7%, 일반창조계층은 14.3%였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P값이 0.42로 통계적으로 창조계층의 종류와 이사 여부간에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창조계층의 종류가 이사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3. 창조계층 종류와 이사 유무

구분	이사 유무		합계	유의 확률
	이사 없음	이사		
예술 창조	85 (83.3)	17 (16.6)	102 (100)	.41
핵심 창조	61 (80.2)	15 (19.7)	76 (100)	
일반 창조	655 (85.6)	110 (14.3)	765 (100)	
합계	801	142	943	

주:** P<0,05 *** p<0,01

2. 창조계층의 선별성

창조계층 중 이동한 142명에 대하여 이동 특성에 대한 선별성을 분석하였다. 이동의 선별성이란 개인 특성별로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이동하는가를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으며, 미혼자들이 더 잘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조계층 종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전입하고 전출하느냐를 분석함으로써 특징을 분석하였다. 창조계층의 특성에 따라 이동자의 선별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조계층 이동자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86%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이동의 경우, 모든 지역의 이동이 남성의 이동비율이 높아 창조계층의 경우, 남성이 이동에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전체적으로 20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이 가장 높아 젊은 층이 이동에 좀 더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창조 계층을 포함한 일반적인 이동의 경우, 젊은 층이 이동에 좀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25].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내 이동의 경우, 연령이 다른 지역이동보다 좀 더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혼인의 경우,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약 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미혼자의 이동성향이 강한데 비하여 창조계층의 경우 미혼 보다는 기혼자의 이동성향이 강한 것이 흥미롭다. 비수도권 내나 수도권내 이동의 경우, 기혼자의 이동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전입의 경우에는 미혼자와 기혼자의 비율이 동일하였다. 거주점유형태의 경우, 자가보다 전세, 월세 등 자가가 아닌 경우가 약 70%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비수도권 내 이동과 수도권내 이동의 경우 비슷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전입의 경우 약 95% 이상이 자가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는 창조계층의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으며, 특히 수도권 전입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내 이동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도권 전입의 경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모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조계층별 분석은 예술계층 17명, 핵심창조계층 15명, 일반창조계층 100명으로 특히, 예술계층과 핵심창조계층의 표본의 수가 작아 지역별 분석만 하였다. 예술창조계층의 경우 수도권내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핵심창조계층과 일반창조계층의 경우 비수도권 내 이동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지역 내(비수도권

내, 수도권내) 이동이 많았으며, 수도권 전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조계층 이동자의 이주동기

무엇 때문에 이동하는가하는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노동패널에서 이주하였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살고 계신 곳으로 이사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15개의 다양한 응답 항목(3개 항목은 무응답으로 제외)을 분석하였다. 비창조계층의 이주 동기는 (6) 평수, (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3)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라는 응답이 1위, 2위, 3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집의 평수나 집값과 관련된 주거 요인과 주거환경(통근관련)이 중요한 이주 동기였다. 반면,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는 (6) 평수와 관련된 응답이 가장 많아 비창조계층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2순위는 (2) 신혼집마련으로 3순위는 (1) 취업/창업이 중요하여 비창조계층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비창조계층에 비해 창조계층의 이주에는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직장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편의시설, 친지/가족과의 유대감 등은 중요 이동원인이 아니었다. 특히, Florida(2002) 등이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편의 시설이 창조계층의 이동에 주는 영향력이 낮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지만 어메니티는 카페, 음악공연, 작은 상점 등 걷고 싶은 거리를 구성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동패널에서 제시하는 주거이동요인인 단순 편의시설(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을 어메니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사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중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항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창조 계층의 이동에 어메니티의 영향력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외에도 친지/가족과의 유대감도 선행연구에서는 중요한 창조계층의 이주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해당 분석에서는 주거나 직장요인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의 이주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p값이 0.0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창조계층과 비창조계

층의 이주 동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창조계층의 이주동기를 비수도권 내 이동, 수도

권 내 이동, 수도권 전입으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 내 이동(비수도권 내, 수도

표 4. 창조계층의 선별성

분류	구분	비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내 이동	수도권전입	합계
성별	남자	39	37	10	86
		(63.9)	(60.7)	(50)	(0.61)
	여자	22	24	10	56
		(36.1)	(39.3)	(50)	(0.39)
나이	~19	11	8	6	25
		(18)	(13.1)	(30)	(0.18)
	20(29)	31	23	11	65
		(50.8)	(37.7)	(55)	(0.46)
	30(39)	15	19	3	37
		(24.6)	(31.1)	(15)	(0.26)
40(49)	4	9	0	13	
	(6.6)	(14.8)	(0)	(0.09)	
50(59)	0	2	0	2	
	(0)	(3.3)	(0)	(0.01)	
혼인 상태	미혼	14	15	10	39
		(23)	(24.6)	(50)	(0.28)
	배우자 있음	45	44	10	99
		(73.8)	(72.1)	(50)	(0.7)
	별거	0	1	0	1
		(0)	(1.6)	(0)	(0.01)
이혼	2	0	0	2	
	(3.3)	(0)	(0)	(0.01)	
사별	0	1	0	1	
	(0)	(1.6)	(0)	(0.01)	
거처 점유	(1) 자가	24	19	1	44
		(39.3)	(31.1)	(5)	(31)
	(2) 전세	23	29	10	62
		(37.7)	(47.5)	(50)	(43.7)
	(3) 월세	8	12	7	27
(13.1)		(19.7)	(35)	(19)	
(4) 기타	6	1	2	9	
	(9.8)	(1.6)	(10)	(6.3)	
주거 형태	(1) 단독주택	5	3	1	9
		(8.2)	(4.9)	(5)	(6.3)
	(2) 아파트	44	44	7	95
		(72.1)	(72.1)	(35)	(66.9)
	(3) 연립주택	2	2	1	5
		(3.3)	(3.3)	(5)	(3.5)
	(4)다세대 (다가구)주택	6	2	7	15
(9.8)		(3.3)	(35)	(10.6)	
(5) 상가주택	1	6	0	7	
	(1.6)	(9.8)	(0)	(4.9)	
(6) 기타	3	4	4	11	
	(4.9)	(6.6)	(20)	(7.7)	
창조 계층	예술창조계층	3	10	4	17
		(17.6)	(58.8)	(23.5)	(100)
	핵심창조계층	8	7	0	15
		(53.3)	(46.7)	(0)	(100)
일반창조계층	50	44	16	110	
	(45.5)	(40)	(14.5)	(100)	
합계		61	61	20	142
		(100)	(100)	(100)	(100)

표 5. 창조계층 유무에 따른 이주동기의 차이

이동요인	비창조계층		창조계층		유의 확률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1)취업/창업	61	6.7	20	14.1	.004
(2)동일직장내근무지이동	53	5.8	14	9.9	
(3)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편의를 위해	92	10.1	14	9.9	
(4)자녀교육 때문에	15	1.6	5	3.5	
(5)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7	0.8	0	0	
(6)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68	18.4	22	15.5	
(7)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125	13.7	12	8.5	
(8)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살기위해	71	7.8	8	5.6	
(9)환경 및 건강때문에	59	6.5	7	4.9	
(10)인근의편의 시설 때문에 (마트,공원,복지시설 등)	23	2.5	2	1.4	
(11)신혼집 마련	67	7.3	21	14.8	
(12)내집 마련	136	14.9	15	10.6	
(13)어려서부터 살아왔다	3	0.3	0	0	
(14)기타	21	2.3	1	0.7	
(15)계약만료/철거,재개발	11	1.2	1	0.7	
합계	912	100	142	100	

주:** P<0,05 *** p<0,01

권내 이동)에 비하 여 수도권 전입의 이동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비수도권내 이동은 (6)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수도권내 이동은 (12) 내집 마련이 1순위로 모두 주거와 관련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전입의 경우 (1) 취업과 창업, (2) 동일 직장내 근무지 이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직장내 관련 요인이 수도권 전입의 경우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 내 이동의 경우 (1) 취업/창업, (2) 동일 직장 내 근무지 이동이 4위와 7위, 5위와 6위로 상위 순위에 오르지 못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비수도권 내 이동의 경우 (11) 신혼집 마련, (3)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서, (1) 취업/창업이 중요한 것을 분석되었으며, 수도권내 이동의 경우는 6)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7)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가 중요한 이동 요인이었다. 다른 지역 이동과 다르게 (8)보육 혹은 부모 봉양,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가 중요한 요인이었

표 6. 창조계층 이동자의 이동요인

(단위: 명, %)

이동요인	비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내 이동		수도권 전입		합계	순위	유의 확률
	응답자	순위	응답자	순위	응답자	순위			
(1) 취업/창업	7	4	6	5	7	1	20	3	.000
	(11,5)		(9,8)		(35)		(14,1)		
(2)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3	7	5	6	6	2	14	5	
	(4,9)		(8,2)		(30)		(9,9)		
(3)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8	3	5	6	1	4	14	5	
	(13,1)		(8,2)		(5)		(9,9)		
(4) 자녀 교육 때문에	3	7	2	10	0		5	9	
	(4,9)		(3,3)		(0)		(3,5)		
(5)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0		0		0		0		
	(0)		(0)		(0)		(0)		
(6)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4	1	8	2	0		22	1	
	(23)		(13,1)		(0)		(15,5)		
(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5	5	7	3	0		12	6	
	(8,2)		(11,5)		(0)		(8,5)		
(8)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0		7	3	1	4	8	7	
	(0)		(11,5)		(5)		(5,6)		
(9) 환경 및 건강 때문에	2	9	5	6	0		7	8	
	(3,3)		(8,2)		(0)		(4,9)		
(10)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1	10	1	11	0		2	10	
	(1,6)		(1,6)		(0)		(1,4)		
(11) 신혼집 마련	12	2	5	6	4	3	21	2	
	(19,7)		(8,2)		(20)		(14,8)		
(12) 내집 마련	5	5	9	1	1	4	15	4	
	(8,2)		(14,8)		(5)		(10,6)		
(13)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0		0		0		0		
	(0)		(0)		(0)		(0)		
(14) 기타	1	10	0		0		1	11	
	(1,6)		(0)		(0)		(0,7)		
(15) 계약만료 / 철거,재개발	0		1	11	0		1	11	
	(0)		(1,6)		(0)		(0,7)		
합계	61		61		20		142		
	(100)		(100)		(100)		(100)		

표 7. 창조계층별 이동자의 이동요인

(단위: 명, %)

이동요인	예술창조계층		핵심창조계층		일반창조계층		유의 확률
	응답자	순위	응답자	순위	응답자	순위	
(1) 취업/창업	1 (5.9)	4	2 (13.3)	2	17 (15.5)	2	0.361
(2)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3 (17.6)	2	0 (0)		11 (10)	5	
(3)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2 (11.8)	3	0 (0)		12 (10.9)	4	
(4) 자녀 교육 때문에	0 (0)		2 (13.3)	2	3 (2.7)	9	
(5)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0 (0)		0 (0)		0 (0)		
(6)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 (5.9)	4	4 (26.7)	1	17 (15.5)	2	
(7)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2 (11.8)	3	1 (6.7)	7	9 (8.2)	7	
(8)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5 (29.4)	1	0 (0)		3 (2.7)	10	
(9) 환경 및 건강 때문에	0 (0)		1 (6.7)	7	6 (5.5)	8	
(10)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0 (0)		0 (0)		2 (1.8)	11	
(11) 신혼집 마련	1 (5.9)	4	2 (13.3)	2	18 (16.4)	1	
(12) 내집 마련	2 (11.8)	3	2 (13.3)	2	11 (10)	5	
(13)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0 (0)		0 (0)		0 (0)		
(14) 기타	0 (0)		0 (0)		1 (0.9)	12	
(15) 계약만료 / 철거, 재개발	0 (0)		1 (6.7)	7	0 (0)		
합계	17 (100)		15 (100)		110 (100)		

다. 수도권 전입의 경우, 직장요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전입 간 창조계층의 이주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p값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계층별 이동요인의 경우, 예술창조계층과 핵심창조계층의 경우 이동자가 17명과 15명으로 적어, 따로 수도권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동원인을 분석하였다. 예술창조계층은 '(8)보육 혹은 부모봉양, 가족친지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2순위는 '(2) 동일 직장 내 근무지 이동', '(3)직장/학교의 통근 편의'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핵심창조계층은 (6)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취업/창업, (4) 자녀 교육 때문에, (11)신혼집 마

련, (12) 내집 장만이 중요한 이동원인이었다. 일반창조계층은 (11) 신혼집 마련, (1) 취업/창업, (6) 평수를 줄이거나 넓히려고 등이 중요한 이동 요인으로 주거와 직장요인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예술창조계층은 직장요인과 유대감을 중요시하며, 핵심창조계층은 주거와 직장요인과 교육, 일반창조계층은 주거와 직장요인을 중요시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창조계층별 이동에는 주거와 직장요인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피셔의 정확한 검정 결과, p값이 0.361로 창조계층별 나타나는 이주요인에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창조계층별로 이주 요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창조계층 이동 특성과 이동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창조계층 역시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이동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7][9]에 따르면, 창조계층의 이동성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비창조계층이 일하는 공장근처에 입주하는 반면, 창조계층은 전문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주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적으로 창조계층의 이동성이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높다는 선행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창조계층의 이동성이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조계층의 종류에 따라 이동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창조계층의 특성에 따라 이동자의 선별성을 분석하면 창조계층 이동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이동성향이 강했으며, 연령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는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거처집유형태는 전세, 월세 등 자가 아닌 경우가 높았다. 또한 수도권 전입의 경우 약 95% 이상이 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지역 내(비수도권 내, 수도권 내) 이동이 많으며, 수도권 전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창조계층이 이주할 때는 주거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강하게 반응하며, 특히, 비창조계층의 이주요인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오은주[19]의 연구결과인 IT 창조 계층이 근린 어메니티와 경제적 요인을 중시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간에 이주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의 경우, 주거와 관련된 요인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이주요인이었으

나 창조계층은 직장요인이 더 중요하였다. 또한, 창조계층의 종류에 따라 이주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내 이동(비수도권 내 이동과 수도권 내 이동)은 주거 관련 요인들이 1순 위였으며, 수도권 전입은 직장 관련 요인이 중요하였다.

넷째, 인간관계, 편의시설 등의 변수는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Borggren [11]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해당 설문항목인 인간관계는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서”라는 항목으로 측정됨에 따라 사회적 인간관계 인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를 가진다. 또한 편의시설(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들이 창조계층의 이동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상기 분석을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외의 지역의 창조계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 창조계층의 유입을 위해 창의도시, 문화도시 등 지방도시의 여러 노력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여러 기반시설이나 문화 활동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도권 내 집중의 요인은 기반시설이나 기타 다른 요인보다는 창업과 취업의 기회라고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산업이나 창조 기업의 유치 등의 전략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저지예술인 마을, 파주의 출판단지과 예술 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의 창조산업 관련 정책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내 이동의 경우, 주거요인이 중요하며, 부동산 실수요자의 이동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거요인 중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기 위해”, “신혼집 마련”, “내 집 마련” 등의 대답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와 관련된 대답은 많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이동보다는 실수요자의 이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내 창조계층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의 이동성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창조계층의 유무에 따라서 이동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나 창조계층 유형별 창조요인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셋째, 수도권 중심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계층의 이동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별로 창조계층의 이동요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창조계층의 이동요인을 세분화되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이사의 이동요인을 18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그룹화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내집 마련, 신혼집 마련,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등 주거와 관련된 요인만 18개중 5개를 차지하고 있어 이주의 이동요인이 편향되어 있다. 둘째,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변수들이 하나의 이동요인으로 묶여 있어 해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노동패널의 자료 특성상 이동요인이 그룹으로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요인 중 취업과 창업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육 혹은 부모방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환경 및 건강 때문에 등 세분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 요인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어메니티와 관련된 시설들이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 (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라는 항목만으로 측정되고 있어 정확하게 어떠한 요소들이 창조계층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창조계층의 이동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경향을 반영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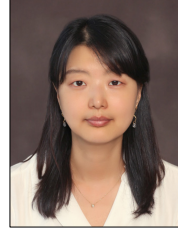
- [1]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2002,
- [2] 김준홍, "Richard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의 한 국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6권, 제1호, pp.31-51, 2012.
- [3] 박세훈, 김원배, 박은실, 남기범, 김윤환, 차재근, 류태희, 민운기, 조명래, 이영범, *창조도시를 넘어 서-문화개발주의에서 창조적 공동체로*, 나남, 2014.
- [4] 박은실, "국내 창조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국토*, 제322호, pp.45-55, 2008.
- [5] 김범식, 김묵한, *서울시 창조계층 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5.
- [6] B. Ehrenreich and J. Ehrenreich, "The Professional-Managerial Class," Boston: South End Press, 1979.
- [7] R. Reich,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Vintage, 1992.
- [8] T. Clark, T. Lloyd, R. Wong, and P. Jain, *Amenities Drive Urban Growth: A New Paradigm and Policy Linkages*, In *The City as an Entertainment Machine*, pp.291-322.
- [9] C. Mellander and R. Florida, "The Creative Class or Human Capital. Explaining Regional Development in Sweden," *CESIS Electronic Working Paper Series*, 2006.
- [10] P. Lawton, E. Murphy, and D. Redmond, "Residential Preferences of the 'Creative Class'," *Cities*, Vol.31, pp.47-56, 2013.
- [11] J. Borggren, "In Search of Creative milieu: Creative Peoples Workplaces and Residences in Göteborg," In *RESER 2010 Conference*, Gothenburg, 2010.
- [12] H. K Hansen and T. Niedomysl, "Migration of the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Swede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9, No.2, pp.191-206, 2009,
- [13] A. J. Scott, "Jobs or Amenities? Destination Choices of Migrant Engineers in the USA," *Papers in Regional Science*, Vol.89, No.1, pp.43-63, 2010.

- [14] S. Darchen and D. G. Tremblay, "What Attracts and Retains Knowledge Workers Students: The Quality of Place or Career Opportunities? The Cases of Montreal and Ottawa," *Cities*, Vol.27, No.4, pp.225-233, 2010.
- [15] 김홍주, 박기풍, "도시의 창조적 계급·기술·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국토연구*, 제45권, 제1호, pp.251-264, 2010.
- [16] 박수정, "서울시 창조계층의 입지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pp.49-62, 2013.
- [17] 배현혜, 이희연, "외국인 창조계층의 커뮤니티형성과정과정과 정주만족도 분석 - 대전을 사례로 하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호, 제2호, pp.1-15, 2013.
- [18] 김은란, 박세훈, 강호제, 박경현, 정소양, 박재현, 김보미,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국토연구원 보고서, 2014.
- [19] 오은주, "지식기반산업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 예술인력, IT인력,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50권, 제6호, pp.225-240, 2015.
- [20] 최일용, 황성원, "한국에서의 창조계급 적합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3호, pp.467-489, 2014.
- [21] 김은란, 정소양, *창조계층 입지패턴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2011.
- [22] 류근관, *통계학*, 법문사, 2008.
- [23] 최막중, 김준형, "재개발 과정에서의 소유자간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43권, 2005.
- [24] 홍성호, 유수영,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pp.1-19, 2012.
- [25] 최진호,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pp.159-178, 2008.

저 자 소 개

주 미 진(Mijin Joo)

정회원



- 1999년 8월 :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경제학학사)
- 2011년 5월 : Cleveland State University(도시행정학 박사)
- 2014년 10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인적자본, 어메니티, 도시경제